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1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7월 첫 주부터 예배 순서 일부 변경

찬송 57장 · 봉헌송 · 주기도송 삭제돼 보다 은혜로운 예배의 정착 기대

7월 첫 주부터 주일 낮 예배(1, 2, 3, 4부) 순서가 일부 변경되어 새롭게 실시된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 찬송 57장은 1장으로, 성서 교육 이후 송영 1장은 찬송으로 대체되었다. 헌금 이후 부르던 70장

봉헌송이 삭제되었으며, 새가족 환영은 성도의 교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축도 이후 주기도문송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찬양대의 폐회송이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예배 순서를 볼 때

초창기 중헌교회 예배 순서로 환원되었으며, 전통적이면서도 은혜로운 예배 진행으로 더욱 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순서로 정착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교구 개편 단행 18개 교구에서 22개 교구로 증설

교회는 지난 7월 1일 저녁 8시 40분 6월 정기 당회에서 기존의 18개 교구에서 4개 교구를 증설하는 교구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교구 개편은 교인 배가 운동에 따른 교인 증가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개편된 교구들을 살펴보면, 부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구는 세대수가 적더라도 분할하여 교구를 형성하였다. 교회와 거리가 먼 교구는 가능한 한 세대수를 적게 배정하여 심방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같은 행정구역이더라도 교구를 달리한 곳도 있다.

그러나 거리에 관계없이 부흥이 더디다고 여겨지는 교구는 현재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분할하지 않았다. 여건만 형성되면 두 개의 교구로 나누어져 부흥할 수 있는 교구는 세대수가 많더라도 이번에는 분할하지 않았고, 분할할 여건은 되지만 차후로 미룬 교구도 있다.

또 서울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위성도시로만 형성된 교구도 있다. 이는 신도시를 거점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고, 위성도시 교인들의 단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제1교구, 제2교구, 제3교구, 제5교구, 제6교구, 제9교구, 제10교구, 제13교구, 제14교구, 제16교구를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34개 교구로 확장하는 제1단계이다(개편된 교구의 관할 지역은 4면에 게재).

체육인전도회 모임

체육인전도회는 체육계의 복음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 일시: 7월 5일 오후 3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중헌프리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리 수확에 대한 열매에 감사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단을 쌓게 된다.

농촌 교회는 발농사를 통해 얻어진 보리 수확의 제일 좋은 것을 바치게 되지만, 도시 교회는 발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에 대하여 좀 주저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수확에 대한 감사는 바로 우리

들의 삶의 열매로써 건강과, 평안과, 봉사,의 대가를 서슴없이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풍성한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섰다.

더운 여름이지만 교회는 쉬지 않고, 매 주일 성경 공부의 모자라는 부분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양회를 개최한다. 이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학부가 하기 수양회를 가졌으며, 계속해서 7월 14일부터는 중등부를 비롯하여 청년부, 장년부가 하기 수양회를 갖게 된다.

땀흘려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온 교회 성도가 기도과 물질로 뒷받침해주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은 하루 내지 닷새 동안의 짧은 일정이지만, 열심히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써 손색없는 중헌의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 안팎에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한 모든 비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사용하는 자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성 있게 사용하고, 다른 성도가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관리 측면에도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겠다.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마음 가짐을 갖는 습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

카메라 초점



▲ 지난 6월 27일 개최되었던 북한선교세미나



▲ 92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마련된 은혜의 잔치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영적 도약을 다짐하자. 사진은 6월 29일부터 4박 5일 동안 있었던 대학부 수양회

예배 안내위원 교육

예배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에서는 예배 안내위원들이 충성된 종으로서 더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7월 9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베다니홀
- 강사: 신성종 목사(설교)
- 헌정남 전도사(교육)

교회 인사

- ◆ 교역자 부서 변경
 - 초등1부 지도 한용관 목사
 - 고등부 지도 장봉생 목사
 - 고등부 부지도 김필수 전도사
- ◆ 교구 교역자 임명
 - 제9교구 담당 조동원 목사
 - 제18교구 담당 임성환 목사
 - 제19교구 담당 성봉환 목사
 - 제20교구 담당 정광욱 목사
 - 제21교구 담당 조윤재 목사
 - 제22교구 담당 김수상 목사
- ◆ 교구장 임명
 - 제9교구장 최성현 장로
 - 제14교구장 마성락 장로
 - 제18교구장 강 협 장로
 - 제19교구장 정하우 장로
 - 제20교구장 김영길 장로
 - 제21교구장 박영식 장로
 - 제22교구장 최대원 장로
- ◆ 부목사 사임
 - 심길용 목사

일본어예배 지도 및 국제교구 담당 목사직 사임

교정전도회 조직키로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교도소 전도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교정전도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전도회의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재소자들의 선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특별한 기도와 관심이 요청된다.

고등부

청소년 찬양 전도 대축제

고등부는 오는 7월 5일 오전 9시부터 갈릴리홀에서 제3회 청소년 찬양 전도 대축제를 개최한다. 1부로 먼저 예배를 드린 후 2부 순서로 찬양 축제를 갖는데, 이 시간에는 성극 발표와 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배가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물론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으나 고등부에는 출석하지 않는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주최측은 바라고 있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마5:13~16)

우리 사회를 볼 때 너무도 어둡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울까?’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 1천2백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산다면, 오늘 이 시대가 이처럼 어둡거나 부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점점 부패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이러한 역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소금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썩은 것은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세상, 부패된 세상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소금이라고 하는 간을 쳐야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결국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는 것은 소금을 알맞게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의 맛을

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도를 통해서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도는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빛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빛입니다(엡5:8).

쉽게 비유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낮에 태양이 발하는 빛으로부터 달은 빛을 받아들이고 밤이 되어서 세상이 어두워질 때 달은 다시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달은 세상을 비추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게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이 빛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 빛을 발하면 그 빛은 아무

것도 바로 빛된 삶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5, 16)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이것을 끄려고 하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을 끌 때 말을 씩읍니다. 그러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자연히 불도 꺼지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등불을 끌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비취기 위해서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 아래 있다는 것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나타나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등경 위에 있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생활을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5:8, 9) 이 말씀에 따라 우리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조그마한 빛 하나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밤중에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비취오는 등불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너무도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추어주어야 합니다.

빛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줍니다. 빛은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빛은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역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시36:9).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신자들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가 빛이 못됩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빛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어두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가서는 교회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대신 신자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빛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5장 1절에 의하면, 이 말씀은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실행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1.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모두 성남 성녀입니다. 훌륭하게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순종도 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영어로 솔트(salt)라고 하고 이 단어에서 영어의 셀러리(salary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이 귀중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소금을 봉급으로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노예를 사고 팔 때에도 소금을 사용할 만큼 귀중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첫째로, 정결한 것은 썩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것, 아직 싱싱한 것, 정결한 것을 썩지 않도록 해줍니다. 생선에 소금을 뿌려주면 그 생선은 더 이상 상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썩은 것을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게 하는 역할

나타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맛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사귄 때 오는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맛, 육체적인 맛, 본능적인 맛은 알지만 영적인 맛, 하늘나라의 맛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 인생을 왜 사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영원한 맛, 하늘나라의 맛, 기쁨들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금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맛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도 이 기쁨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모르면 예수 믿는 참 맛을 모릅니다.

또 기도는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하고 정결한 것이 썩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공무원과 군인,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부패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

I. 예측 불능의 변화

1988년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은 "내 생전에 독일통일의 실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탄했다. 다음 해 1989년 10월말에 한국을 방문했던 브란트(Willy Brandt) 전 서독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언제나 무너질까요?" 하는 한국학자의 질문을 받고 "동서냉전의 상징인 그 장벽이 그리 쉽게 무너질 수가 있겠소? 앞으로 십 년 가량 더 기다리면 그것이 붕괴될 가능성도 생기겠지요."라고 말했다. 브란트가 그 말을 한 지 꼭 10일만인 11월 9일 베를린장벽은 무너지고 다음 해 가을 동서독은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꼬리를 무는 전환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통일을 전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도 성급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독일과는 상황이 크게 다른 우리 민족의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국의 반드(Lany Bond)는 그의 저서 <붉은 불사조>에서, 영국의 윈체스터(Simmon Winchester)는 <대평양의 악몽 - 극동에서의 제3차 대전> 등에서 말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은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잡고 있지만, 그의 사후 김정일 체제가 지탱할 수 있는 기간을 미국의 한 정치가는 3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한반도의 통일 전망은 불확실하다. 단지 우리는 거대한 추세를 진단해 볼 뿐이다.

II. 국제 환경의 변화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 환경의 변화는 1945년 분단 당시에 비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우리 나라 분단에 관해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얄타비밀협정설, 군사편의설,

● '92 중헌 북한선교세미나 ●

제1강의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1)

이원설 회장(교육부 교육심의회 회장)

제1강의 : 통일의 전망과 북한 선교의 향후 과제

제2강의 : 남북대화와 북한 선교(최문헌 통일연수원 원장)

제3강의 :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김상복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미국의 군사입각지(立脚地) 확보설, 크레믈린의 관심을 구라파로부터 극동으로 돌리려는 시도설, 일본방위 목적설 등이 있으나 이 모두가 미·소 양국간의 냉전과 한반도 분단은 세계의 양극화의 일환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깊이 관찰하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일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에 이미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관동군관할지역(북)과 조선군관할지역(남)으로 양분했었기 때문에 소련군과 미군의 분할 진주의 배경을 만들었다. 또 당시의 중국공산당도 아직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소련군의 북한 진주를 환영하고 있었다.

분단 후 47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의 민족 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 1985년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등의 신사고(新思想) 정책을 시작한 이후 1989년 5월 헝가리의 카다(Janos Kadar)정권이 무너지고,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동년 12월 2일, 3일 말타정상회담에서 미·소 양국은 냉전의 종식과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소련의 한반도 정책도 크게 수정을 보게 되어 88올림픽, 1989년 4월 3일 양국 간의 무역 사무소 개설, 동년 12월 8일 영

사업무 개시, 다음해 국교 정상화와 고르비의 제주도 정상회담 등으로 격세지감을 주는 변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중국도 정경 분리의 구실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의 무역을 확대해 왔는 바, 1979년 2천만불의 교역량이 1984년 30억불로 늘어났고 지금은 40억불을 상회함으로써 구사회주의국가들과 교역비의 85퍼센트를 차지했고 우리의 4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이상옥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등 고위층의 교류는 국교 정상화가 임박했음을 예견케 하고 있다.

단지 일본이 문제이다. 미국의 힘이 이 지역에서 퇴조하자 일본은 서울과 평양간의 등거리외교를 해왔다. 1974년 다나카(田中) 정권의 기무가(木村)외상이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만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본의 속셈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런 정책은 그후 미키(三木), 오히라(大平), 스즈키(鈴木), 나카소네(中曾根), 다케시타(竹下)를 이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고 특히 1985년 이후 동경은 평양의 고위 관리들을 매년 초청하고 자민당의 원로 가네마루(金丸) 등을 북한에 파송한 바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을 도전하는 강대국이 될 것을 제어하는 데 일본 정책의 본심이 있는 것 같다.

III. 북한의 변화

미국의 사학자 커밍(Bruce

Cuming)은 한반도 분열의 주범은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 운동 자체가 좌와 우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 왔던 데 있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과연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우리 나라의 분단을 지속한 것은 국제 사정만이 아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형제살해의 전쟁을 일으켰고 한반도를 이데올로기 대립의 격전지로 만든 범인이 우리 민족 스스로가 아닌가?

그러나 분단 47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민족의 내부 사정은 민족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초까지도 북의 경제 사정은 우리보다 좋았고 일인당 GNP도 우리를 앞질렀기 때문에 "남한은 거지의 나라"라고 내외에 선전할 수 있었다. 70년대의 미, 소 대평양의 바람을 타고 72년 7·4남북공동성명, 적십자 이산가족 재회회담 등이 있었으나 땅굴사건으로 대화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오면서 북한 당국은 소련의 '신사고(新思想)' 정책, 헝가리, 폴란드를 위시한 동구라파의 변화,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 대일, 대미 통상 및 기술 교류의 절박성,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의 욕구, 남한의 발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계산, 남북 회담을 끌어가면서 남한 젊은층에 대한 주체사상 선전 등의 다목적을 가지고 우리 정부와의 대화가 보다 진지하게 재개되었

다.

이제 최근의 남북 대화의 추이와 그 쟁점을 여기서 반추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요 부분만 간추리면 90년 4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90년 9월 22일~10월 6일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남북 공동응원 실현, 동년 10월 남북통일 축구대회를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 동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남북 합동 영화제에 동참, 이런 배경을 가지고 1991년 12월 13일 정원식 총리와 연행묵 총리 사이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역사적으로 서명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의 적화통일 원칙에는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불가침 선언 등을 통해 평양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 통상, 미군의 핵무기 철수, 티스퍼리트 훈련 중지, 주한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 남한에 민주정부 수립 등 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 유일 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김일성은 노쇠 현상(청각장애, 도보불편, 시력약화 등)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와 동년배의 빨치산 세대는 상당히 퇴진하고 테크노크라트의 현실주의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경제력의 약화는 일반 민민의 불만뿐 아니라 군부의 불평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평양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선이 열릴 것인지 예측 불능이다.

만약 브란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10년 앞으로 예견했던 것이 그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낸 지 꼭 10일만에 그것이 무너진 것 같은 변화가 한반도에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계속)

장로칼럼

마음의 혁신



윤광일 장로
(초동6부 부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롬14:7)라고 바울은 신자들의 생의 목적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중립을 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는 데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개개인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요구하였다(행6:3). 이 말은 오늘날에도 일맥 상통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유되

고 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어 계속 전진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자. 모든 일의 순서는 미국의 경제학자 테밍이 주장한 원리대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한다면 일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행동 단계에서는 저의 미비하다고 평가한다.

·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는 아니었는지?

· 초신자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 오히려 그들의 마음 속에 공허와 쓸쓸함을 심어주지는 않았는지?

· 행사나 기도회 후 우리의 생활 양식이 조금은 변화가 되었는지?

· 교회는 교인들의 가정 생활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 정말로 나는,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와준 적이 있는지?

· 누가복음 10장의 강도를 만나 거만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니었는지?

이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보자. 그리고 나에게와 닿는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실천하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우리는 배가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를 풀기 위하여 개인은 물론 부서에서도 열심히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런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던, 그 간절하고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남은 6개월간 우리의 정열의 불꽃을 태워보자. 위기가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나 사람을 나타내보인다. 파선의 위기가 있기까지 바울은 단지 "몇 몇 죄수들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위기가 오자 그 환경의 명백한 지배자가 되었다. 육체적인 용기보다 도덕적인 용기는 더 위대하고 희귀하다. 바로 갈렙이 가데스의 위기 때에 둘 다를 보여주었다.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 봉사의 불길,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서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생활 태도, 언어 행동이 변화되어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리라고 믿는다.

다음호 칼럼은 김의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92년도 여름 계절학교 일정

부 서	일 시	장 소	강 사	주 제
영아부	7. 20, 21	영아부실	김용기	성장하는 어린이
유치부	7. 20 ~ 22	교201, 205호	김정자	하나님의 생물들
초등1부	7. 20 ~ 22	새가정부실	김필수	하나님의 창조 동산 우리가 가꾸자
초등2부	7. 20 ~ 22	교314호	정갑신	하나님의 창조 동산
초등3부	7. 20 ~ 22	교307호	윤삼중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
초등4부	7. 20 ~ 22	교407호	장상기	하나님의 땅과 바다
초등5부	7. 20 ~ 22	교414호	정창옥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
초등6부	7월	충현기도원	장경철	예수, 나의 구주
중등1부	7. 23 ~ 25	충현기도원	김희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중등2부	7. 20 ~ 23	충현기도원	이종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중등3부	7. 14 ~ 16	충현기도원	김태준	열매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자
고등부	7. 16 ~ 18	영종수련원	조동원, 남용우	새 언약, 새 일꾼
청년1부	7. 16 ~ 18	강원도 원주	김준수	온전하라
청년2부	7. 16 ~ 18	강원도 원주	천정웅	새 사람을 입으라
청년3부	7. 16 ~ 18	충현기도원	김해규, 김정우	청년이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장년1부	7. 17	교201, 205호	송태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장년2부	8. 14, 15	충현기도원	김광국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장년3부	7. 13, 14	충현기도원	최홍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장년4부	8. 13, 14	충현교회	김양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부	8. 20, 21	갈릴리홀	김양흠	새벽을 깨우는 소망부
사랑부	7. 17	교107호	이홍성	천국에서 살아요
예바다부(학생)	7. 23 ~ 25	충현기도원	김성운	교회 생활을 바로 하라
예바다부(성인)	8. 14, 15	충현기도원	이준우	교회 생활을 바로 하라
영어교육	8. 15	종교수양관	윤영탁	
일어교육	7. 22	선501호		신앙의 성숙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외 집회를 인도하게 하시며,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교구 배가,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 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8. 각 교구가 부흥하게 하소서.
 - 제1교구: ①교구 전 가족들에게 주일 성수의 믿음을 주소서. ②남녀 전도회가 매개되게 하소서.
 - 제2교구: ①교구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고 금요찬양과 기도회 적극 참여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소서. ②교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배가 전도와 성령의 관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제3교구: ①금요찬양회 및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성령 충만받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태신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 출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 제4교구: ①각 가정의 불신자 남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②작정한 태신자들이 속히 결실되 어지게 하소서.
 - 제5교구: ①주일 성수 및 모든 공적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흠이 없 면 전도하는 모범적인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먼 거리에 오고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차량편을 해결해 주소서.
 - 제6교구: ①태신자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 구가 부흥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게 하소서. ②하 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며, 영육간 에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행통함을 주소서.
 - 제7교구: ①교동난 해결되어 모든 모임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②남 성도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③성령 충만하여 교구가 배가되게 하소서.
 - 제8교구: ①각종 예배 및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구가 되게 하소 서. ②교구 열광자들이 열심을 내어 더욱 충성, 봉사하게 하소서.
 - 제9교구: ①성령 충만받고 능력있게 일하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성도 들의 가정의 축복받게 하소서.
 - 제10교구: ①말씀과 생령이 충만 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구역장들에게 열육간에 강권함을 주셔서 많은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 제11교구: 강동 구역의 임대 아파트 거주 성도들이 무사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소서(8세대).
 - 제12교구: 모범적 교구로 성장하게 하시며, 연내에 배가되게 하소서.
 - 제13교구: ①배가 운동에 앞장서

- 는 교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구역 식구마다 기도 응답을 받게 하소서.
- 제14교구: ①은 성도들의 믿음 성 장으로 인하여 더욱 성숙해지는 신 앙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건강이 약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 도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 며 감사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 제15교구: ①중병에 걸린 성도들 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②배가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구령 사업에 앞장서게 하소서. ③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 를 주소서.
- 제16교구: ①교구 일꾼들이 열심 히 모여 성령 충만받고, 흠이 없 복 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성도 들의 생업을 축복하소서.
- 제17교구: ①금요찬양집회에 참여 하여 능력받고 배가 전도하게 하소 서. ②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 제18교구: ①일관명이 예배 출석하 는 교구가 되게 하소서. ② 교구 식 구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9. 교구별 환자
 - 제1교구: 박계녀 권사, 박명자 집사, 손용권 성도, 고득순 성도, 홍순철 성도, 장철준 집사, 안정순 집사, 오덕환 성도, 여운혁 성도, 허정호 성도
 - 제2교구: 박경자 권할, 이금란 권사, 임형재 성도, 마봉남 권사, 조원식 성도
 - 제3교구: 색옥순 권사, 김배진 권사, 류향란 집사, 박소진 권사, 소현 성도, 윤경자 집사, 김시영 성도, 하정숙 성도, 부진, 황국조 성도, 조

신설 교구 관할 지역

기 존	신설	지 역
1	1	역삼동(652-656, 661-664, 672-674, 677, 681-703 제외한 전지역)
2	2	서초구(서초, 방배)
3	3	강남구(대치, 개포2단지 단독주택, 개포5, 6, 7단지)
4	4	강남구(학, 청담, 삼성, 압구정)
5	5	영등포구, 구로구
6	6	동작구, 관악구
7	7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김포, 부천, 인천)
8	8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경기도(문산, 고양군)
9	9	성북구, 도봉구(미아, 번동, 수유)
10	10	중랑구, 동대문구, 경기도(미곡시, 구리시, 남양주군)
11	11	강릉구, 경기도(하남시, 파주군)
12	12	송파구(송파, 방이, 오륜, 오금, 가락, 문정, 마천, 거여), 성남, 용인
13	13	성동구(행당, 응봉, 하왕십리, 금호, 옥수)를 제외한 전지역)
14	14	용산구, 중구(신당을 제외한 전지역)
15	15	서초구(잠원, 반포), 강남구(논현, 신사)
16	16	역삼2동, 도곡1, 2동
17	17	송파구(송남, 잠실, 석촌, 삼전)
2, 3, 16	18	서초구(양재, 우면, 신원, 내곡, 염곡), 강남구(개포, 일원, 세곡, 자곡, 율곡, 포이, 수서)
1	19	역삼동(652-656, 661-664, 672-674, 677, 681-703)
5, 6	20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수원시
9, 10	21	도봉구(도봉, 방학, 창, 우이, 쌍문), 노원구, 경기도(의정부)
13, 14	22	성동구(행당, 응봉, 하왕십리, 금호, 옥수), 중구(신당)

- 대려 성도
- 제4교구:이원철 장로, 노원석 성도, 고석찬 원로권사, 강신주 권사, 김문현 성도, 오현숙 권할, 홍계순 권할, 박영수 성도, 박상준 집사, 신용호 집사
- 제5교구:유효열 권사, 박영옥 권사, 김정임 권사, 서옥재 권사, 정순자 권사, 우선비 권사, 홍정숙 권사, 박대화 집사, 민병일 집사, 최숙진 집사, 이경숙 집사, 김종태 집사, 박전엽 권사, 정혜원 집사, 조영엽 성도, 김희식 성도, 박승자 집사, 황희정 성도, 이철우 성도, 변진현 어린이
- 제6교구:김영진 집사, 손무길 성도, 김익희 성도, 전태호 집사, 조예지 아기
- 제7교구:김종만 집사, 서병철 성도, 이경희 성도, 박병철 성도, 박영숙 권사, 김준경 권사, 심의숙 권사, 심영보 집사, 전일원 집사, 서덕순 권할, 조승의 집사, 이현미 권할, 한선옥 집사, 이금희 성도, 조양덕 집사, 이연태 권사
- 제8교구:조유남 성도, 경홍옥 권사, 박계주 권사, 조봉호 성도, 이학주 권사, 전신덕 권사, 이상호 성도, 김연규 성도, 이규만 집사, 조두래 권사, 이순애 권할, 이광일 권사, 이상선 성도, 김은종 성도, 김준호 성도
- 제9교구:이희행 성도, 백의주 성도, 임한섭 성도, 박영열 성도, 조병복 성도, 한병선 성도, 이종현 성도, 이은옥 성도, 이홍순 성도, 이의순 성도, 강영복 성도, 안병호 성도, 이대일 성도, 박옥관 성도, 최금자 성도, 김충식 성도, 이도원 성도, 차병석 성도
- 제10교구:강성남 성도, 정영숙 집사, 최종란 성도, 박대호 어린이
- 제11교구:조성만 성도, 조성철 성도, 조용구 성도, 이수철 성도, 김원철 성도, 한금배 집사, 지명숙 성도
- 제12교구:강동원 어린이, 김정재 성도, 전순훈 성도, 최동현 성도, 김미란 성도, 김민성 성도, 김박만 성도, 심영순 권사, 최지하 성도, 김옥신 성도, 김경은 성도, 김영기 성도, 정규석 성도, 김남옥 성도, 한동석 성도
- 제13교구:박윤석 권사, 인한식 성도, 최기남 성도, 장경순 성도, 박원용 성도, 남은주 성도, 원도화 권사, 한필양 성도, 김행자 성도, 안영수 성도
- 제14교구:마재하 집사, 고성준 성도, 심영순 집사, 이경림 성도, 전을순 성도, 안순화 집사, 장순자 권사, 안인현 권사, 김정남 권사
- 제15교구:김진학 성도, 안묘섭 권사, 차병성 성도, 김이복 성도, 황광자 집사, 이선영 학생
- 제16교구:이영숙 권사, 정명녀 권사, 최길봉 성도, 황익수 집사, 심귀선 권사, 남병희 성도, 최창현 집사, 이영주 권사, 박상옥 어린이
- 제17교구:장승금 집사, 김득성 권사, 홍유순 권사, 조상금 권사, 안정 권사, 이상운 권사, 문홍구 장로, 천이자 관할, 최창자 성도, 최현자 성도, 김경란 성도, 유수진 성도, 유환영 성도, 김경환 성도, 정동훈 집사
- 제18교구:김유경 어린이, 최현진 어린이, 박도순 성도, 정영자 성도, 장세복 구역장, 옥재련 성도, 김순자 구역장, 유금순 성도, 정동우 성도